



김형효

동서와 고금을 횡단해 밝힌 노자의 무無

《사유하는 도덕경》 낸 철학자 김형효

노자 도덕경이 작금의 대세다. 정보이라 불리는 왕필의 도덕경까지 해체해 노자의 숨이 깃든 원본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도덕경의 문헌학적 몸부림은 치열하다. 지금까지 읽어온 도덕경은 틀렸다면 난색을 표할밖에 없지만, 앞서의 도덕경의 허를 찌르는 역자들의 집칼 솜씨를 보는 즐거움은 기대 이상이다. 김형효(64) 교수의 《사유하는 도덕경》은 '회귀하는 도덕경'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도덕경이 갖는 철학적 의미는 결국 같은 것일진대, 흥흥한 집칼로 문자를 뜯어 의미의 진의를 가릴 것 없지 않은가", 책의 말씀인즉 이것이다.

"작년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도가철학' 강의를 맡았는데, 데리다의 해체철학으로 노장사상을 밝힌 예전 강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초황焦燾이 편찬한 《노자의老莊》을 텍스트로 삼아 도덕경을 다시 써보기로 작정했지요. 데리다에 밀착해 본 것

이 전작 《테리다와 노장의 독법》이라면, 하이데거와 불교에 밀착해 본 것이 《사유하는 도덕경》입니다."

김형효 교수가 《사유하는 도덕경》에서 데리다와 거리를 둔 것은, 도덕경의 중심인 '무無'의 개념을 명징하게 밝혀보려 한 데 있다. 노자에게 무는 '없음'의 개념이 아니라 만물이 들고 나는 '충기沖氣'의 공간. 현존하는 실체로 존재를 설명했던 데리다에겐 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만물의 관계를 차이와 연기, 곧 '차연差延'에 있음을 밝힌 데리다지만, 하이데거와 불교, 노자가 공감한 '유무의 차연'이 애석하게도 데리다에겐 생략되었다. 하이데거

의 '탈근거', 불교의 '연생(緣生)' 혹은 '연기법(緣起法)'은 도덕경의 중심인 무와 소 통하는 개념이다.

“서양철학을 갖고 왜 동양철학을 말하느냐, 하이데거와 불교를 갖고 왜 노자를 읽느냐는 말들을 합니다. 철학하는 일에 동서고금을 구획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사를 가로지르는 두 가지 원형적 사유원리가 있습니다. 노자, 석가. 하이데거가 갖는 '상관론적 사유'와 공자, 소크라테스, 유대교가 갖는 '인과론적 사유'가 그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불교와 노자가, 주자학과 토미즘이 일치하는 것은 원형적 사유원리 때문이지요. 철학이 동서와 고금을 횡단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전부터 있어 왔던 사고방식을 재발견해 당대에 돌려주는 것이 철학의 몫이기도 할 테지요.”

유·무, 선·악, 미·추, 장·단 등 존재 사이의 수평적 왕복을 통해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상관론적 사유'라면, 존재 사이의 수직적 위계를 통해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인과론적 사유'다. 전자는 '해체'로 후자는 '구성'으로 말해진다. 해체 철학의 관점을 고수하는 김 교수는 응당 존재의 본질을 '상관론적 사유'에서 찾는다. 노자의 도덕경 제1장에서 제81장은 '상관론적 사유'의 발전소에 다름 아닌데, 그것을 면밀히 뜯어보고 밝힌 것이 《사유하는 도덕경》이다. 김 교수는 수미일관한 논리로 짜인 도덕경인 만큼 “세상의 비밀에 대해 주술적으로 기록해 둔 것으로 여기거나 임기응변적인 덕담 수준으로 도덕경을 보는 경향을 버리라”고 충고한다. 책을 읽다 보면 도덕경 수미일관의 논리를 노자의 공으로 돌릴 것인지, 김 교수의 공으로 돌릴 것인지 곤혹스럽다. 그러나 도가(해체)와 유가(구성)가 혼재된 왕필의 도덕경을 제쳐 두고 북송 때의 노자 주석가였던 여길보 소유자 이식재의 주해를 찾아 차용한 것을 알게 되면 김 교수에게 흔쾌히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구성주의자들은 선됨으로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상한 결심 속에는 이미 불선(不善)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존재가 제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듯, 선됨에는 불선(不善), 미(美)에는 불미(不美)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선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의 그림자인 허위와 악은 작동을 시작합니다. 노자는 세상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이르지요. 선과 악, 미와 추를 판단했던 구성주의는 '선을 위한 전쟁' 같은 병폐만을 보였습니다. 노자의 무위법(無爲法)과 무위지치(無爲之治)는 이것을 고쳐 보자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라. 흠탕을 거름으로 언뜻은 피어나는데, 흠탕이 더럽다 하여 언뜻을 뒤엎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사유하는 도덕경》이 갖는 주제다. 도덕경 전체 81장을 통해 얻은 성찰은 '근원적 사실대로 세상을 살기, 무로서 가만히 내버려두기'. 선에 집착해 악과 맞서 싸운 역사지만, 인간 세상을 덮고 있는 악은 한순간도 사라진 적 없다. 도덕경 무의 의미는 이처럼 악을 진단하는 데서 더욱 빛난다. 선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선악의 갈등을 잊고 선악의 대결을 넘어서는 지혜의 길이 바로 무인 것이다. 전쟁과 테러, 물질만능주의, 인간의 상품화 등 구성주의의 병폐를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자가 대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를 더하자면, 은둔 혹은 도피주의자가 아닌, 현실의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끌어안고 살았던 이가 노자다.

“물론 상관론적 사유에도 독은 있습니다. 구성이 독단을 낳듯, 해체는 허무를 낳습니다. 구성의 독단이 점령한 현대사회를 치유할 악은 해체입니다. 해체가 독이 되어 허무가 될 때, 구성 혹

은 새로운 무엇이 그것을 전복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지요. 21세기에 노자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를 밝힌 것일 뿐, 구성과 해체 어느 한 쪽을 편애한 것은 아닙니다.”

'철학자는 끝없이 고뇌하며 사유의 여행을 떠나는 자'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고대의 붓다에서 현대의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김 교수는 동서와 고금을 횡단하는 특별한 사유의 여정을 거쳐 왔다. 지난한 그 여정에 힘이 되었던 것은 순간순간 찾아온 깨달음의 황홀경 때문이었다. 루뱅대학교 유학시절, 읽고 절망했던 데리다의 《목소리와 현상》을 오랜 뒷날 완벽히 이해했을 때, 데리다 해체철학으로 도덕경 강의를 하던 어느 날 서구에서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 교수의 기쁨이란, 주자가 느꼈던 수지무지 족지도지(手之舞之 足之蹈之, 손발을 흔들며 춤을 추고 싶은 경지)였다.

“내년이면 교수 정년입니다. 정년을 기념해 한국철학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효의 철학을 밝혀볼 계획입니다. 반야지혜를 얻기 위해 참선에도 몰입해 볼까 해요. 수행이 동반되지 않는 철학이란 영양가가 없지요. 불성의 지혜를 접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텍스트에 기대지 않고 저만의 철학을 밝혀보는 작업도 할 것입니다.”

김 교수에게 남은 사유의 여행은 더 멀고 험해 보인다. 30년 줄기차게 이어진 사유의 여행을 감히 뒤쫓을 수는 없지만, 오늘 《사유하는 도덕경》을 찬찬히 읽어 노자의 무를 얻는다면 그의 10년 여정은 따라잡아 볼 수도 있겠다. 《사유하는 도덕경》은 10년 저쪽에서 시작된 '해체철학과 노자와의 만남'이란 특별한 여정의 마침표인 까닭이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사유하는 도덕경》 김형효 지음 | 소나무 | 552쪽 | 값 25,000원